AI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와 그 수용 -
유튜브 영상과 댓글에 대한 사례연구*

채웅준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목 차〉

Ⅰ. 서론
Ⅱ. 기대의 사회학과 통속이론
Ⅲ. AI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
Ⅳ. 유튜브 시청자의 통속이론과 기대의 재구성
Ⅴ. 결론

국문초록

과학기술은 그것에 거는 전문가의 기대와 함께 작동한다. 전문가의 기대는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대중이 늘 전문가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AI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가 시청자의 통속이론과 접합되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밝혀내려는 시도다. 구체적으로는 AI의 미래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 여섯 편과 그 댓글을 사례로 삼아, 전문가가 기대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시청자가 그것을 수용하는 양상을 함께 분석한다. 시청자가 기대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조명하면서,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미래에 관해 기대를 발언하는 전문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문 주제어 : AI의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전문가 담론, 기대의 사회학, 통속이론, 담론 수용, 유튜브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C2A03024003).

www.kci.go.kr

ⓒ 2026 이화인문과학원

Ⅰ. 서론

현재 전 사회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AI의 미래에 관한 담론에는 여러 기대가 혼란스럽게 공존한다. xAI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근미래에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지적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인류는 그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물자와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1]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과 노벨물리학상을 받아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역시 2025년 6월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AI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망의 색채는 훨씬 어둡다. 그에 따르면 AI 덕분에 증가한 생산성의 혜택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며,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2] 두 사람은 AI가 노동을 대체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그러한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답을 내놓는다. 이처럼 AI를 두고 상반된 진단과 처방이 현재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AI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AI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26년 2분기 생성형 AI 이용률이 40%를 넘어섰다.[3] 2026년 9월 생성형 AI 모바일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도 3,0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총 사용 시간은 무려 64% 증가했다.[4] AI를 둘러싼 이해관계나 전문 지식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여러 기대에 내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생성형 AI와 마주하며 나름의 기준으로 그것

1) Peter H. Diamandis 유튜브 (https://youtu.be/RSNuB9pj9P8, 2026. 9. 9. 접속).
2) The Diary Of A CE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giT0ytynSqg, 2026. 9. 9. 접속).
3) 김세훈 (2026), 「한국인 AI 사용률 40% 첫 돌파…주요국 중 상승폭 '최상위'」, 『경향신문』, 2026. 9. 28.
4) 이호준 (2026), 「국민 2명 중 1명은 챗GPT 쓴다…AI 앱 이용시간 역대 최대」, 『조선비즈』, 2026. 10. 13.

www.kci.go.kr

을 판단하고 행동의 지침을 마련한다. 이때 사람들은 AI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을 동원한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이론, 이른바 통속이론(folk theories)은 AI의 실제 작동 방식과 꼭 일치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판단을 형성하고 행위를 가능케 한다.

전문가의 기대는 이러한 판단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Y2K 문제로 알려진 '2000년 문제'가 대표적이다. 저장 공간을 아끼려 연도를 두 자리로만 기록한 옛 프로그램이 2000년이 되면 "00"을 1900년으로 읽어 오작동하리라는 것이 문제의 요지였다. 1993년 9월 캐나다의 컴퓨터 컨설턴트 피터 드 예거가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에 기고한 「최후의 날 2000(Doomsday 2000)」에서 이 사안을 업계에 알렸다. 이와 관련된 컴퓨터 수리 비용은 수천억 달러로 예상되었다.[5] 1997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한 투자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에드 야데니는 이 문제로 인해 최소 12개월 지속되는,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6] 이러한 전문가의 디스토피아적 주장이 언론에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대비에 나섰다. 1999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5명 중 75%가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워두겠다고 답했고, 그 밖에도 51%는 항공기 탑승을 피하겠다고, 42%는 식량과 물을 비축하겠다고 답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전문가의 기대를 전적으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0년을 앞둔 시점에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도 많았다. 갤럽의 조사에서 Y2K가 미국 경제에 총체적

5) Michael Noer (1998), "Y2K Fear Merchants", Forbes, March 12, 1998. (https://www.forbes.com/1998/03/12/feat.html, 2026. 9. 9. 접속).
6) Edward Yardeni (1997), "The Year 2000 Problem: We Need Answers," Prepared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and Technology,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United States Senate, November 4, 1997. (https://www.banking.senate.gov/themes/banking/hearing_archive/97_11hrg/110497/witness/yardeni.htm, 2026. 9. 9. 접속).
7) Frank Newport (1999), "American Concern About Y2K Continues to Drop," Gallup News Service, December 22, 1999. (https://news.gallup.com/poll/3394/american-concern-about-y2k-continues-drop.aspx, 2026. 9. 9. 접속).

www.kci.go.kr

붕괴를 가져오리라고 본 응답자는 1%,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본 응답자는 8%에 그쳤고, 60%는 사소한 문제에 머무르리라고 답했다. 52%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도 겪지 않으리라 답했다.[8] 기대의 수용자는 때때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자기 상황에는 예외를 두기도 하고, 다른 기준에 비추어 기대 자체를 기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기대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그것을 생산하는 전문가의 설명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과 함께 볼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

AI 담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국내 학계에서 AI 담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담론 생산자에 맞춰 전개되어 왔다. 주제 면에서는 AI 일반에 대한 언론 사설[9]을 비롯해 AI 정책 보도,[10] 미중 AI 패권 경쟁의 언론 구성,[11] AI 윤리 담론[12]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2024년 현안으로 떠오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도 활발히 다뤄지고 있다.[13] 이러한 국내 AI 담론 연구는 대체로 국가 간 기술 경쟁과 정부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담론 지형에 대한 분석이나 담론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전문가나 정

8) F. Newport (1999), n.p.

9) 김수지·우지숙 (2025), 「인공지능 프레이밍: 한국 언론 사설의 프레임 유형 연구」, 『한국행정연구』, 34(4), 263~299쪽.

10) 이겨레·임철민 (2026), 「토픽모델링(BERTopic)을 활용한 국내 인공지능 정책 관련 언론보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6(2), 86~100쪽.

11) 최종환 (2025),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미중 AI 패권 경쟁 담론 비교 분석 (2022-2025): 한국 언론의 키워드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12(3), 205~247쪽.

12) 김민주·김윤서·윤가영 (2025),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윤리 담론 분석과 공학교육의 시사점」, 『공학교육연구』, 28(6), 71~82쪽; 김수아 (2025), 「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내 AI 윤리와 정책 담론: 접근성, 편향 및 지식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62(3), 53~91쪽.

13) 강희영·임성희·이경미 (2025), 「정당화의 언어, 얽혀 있는 담론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문서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32(4), 25~61쪽; 이청민·이슬아·김수진 (2025),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 과정의 담론 양상」, 『교육연구논총』, 46(4), 37~80쪽; 허정우·양혜지·오하영 (2025), 「KR-FinBERT-SC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담론 분석 연구: 뉴스 데이터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9(9), 1111~1122쪽; 조미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공적 담론 분석: 학술 논문과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31(4), 1331~1353쪽.

www.kci.go.kr

책 차원의 AI 담론이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나아가 그런 담론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AI를 접한 대중의 반응을 다룬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중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대개 개인의 활용 양상, 만족도, 개인 수준의 인식적·심리적 변수 등의 상관성을 추적하는 데에 집중한다. 몇몇 연구는 생성형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윤리 교육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언한다.[14] 소셜미디어 언급량과 연관어를 집계하여 담론의 전반적 구조를 분석한 권하나·짱스차오·정정주의 연구는 공중 담론을 실증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5]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인식을 개인 내적 층위에서 각자의 태도로 측정하거나 담론 전체의 언급량과 연관어로 집계하며, 태도의 방향과 분포를 확인하는 데에 그친다. 이는 기술과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AI 담론을 포함하여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일상에서 습득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식과 행동을 조정해 나간다. 그러므로 AI 담론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태도로 자리 잡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AI의 미래를 다루는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과 시청자의 반응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시청자가 자신의 해석적 자원을 통해 전문가의 기대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여기서 재구성이란 전문가의 기대가 시청자의 통속이론과 접합하면서 수정, 보완, 생략, 반박되는, 곧

14) 이용환 (2023),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분석」, 『조형미디어학』, 26(4), 54쪽; 이정욱·김희라·신혜원 (2023), 「ChatGPT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5(4), 1~12쪽; 이한샘·유지원 (2024), 「대학생의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경험 및 인식 탐색: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 435~436쪽.

15) 권하나·짱스차오·정정주 (20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알파고'와 '챗GPT' AI 인식 변화 분석: 언론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6(2), 205~240쪽.

www.kci.go.kr

기대가 댓글 속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전달하는 AI의 미래와 그 정당화 방식, 댓글에서 시청자가 동원하는 해석적 자원, 그리고 양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국내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을 검색했을 때 조회수 상위에 오른 영상 여섯 편과 그 댓글이다. 후술하겠지만 여섯 편은 모두 하나의 제작사가 운영하는 두 채널에 게시되었으며 모든 영상에는 같은 전문가가 출연한다.

물론 이 사례가 AI 전문가 담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사례 연구의 의의가 꼭 대표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례가 담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정보량에 근거하는 '정보 지향적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16] 이 연구는 국내 유튜브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통된 해당 사례를 통해 전문가의 기대가 정당화되고 시청자에게 재구성되는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II. 기대의 사회학과 통속이론

1.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

과학기술은 그것에 거는 기대와 함께 작동한다. 기술 개발자, 테크기업 경영자, 과학기술 연구자, 기술정책 담당자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기술이 어떤 것이며 인간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관한 전망을 생산하고 공유한다. 과학기술학의 한 갈래인 기대의 사회학에서 기대란 "미래의 기술적 상황과 역량에 대한 실시간적 표상"을 가리킨다.[17]

전문가가 생산하는 기대는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그 힘은 현재에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기대는 수행적이다.[18] 무어의 법칙이 대표적인 사례

16) Bent Flyvbjerg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pp. 228~230.

17) Mads Borup, Nik Brown, Kornelia Konrad, Harro van Lente (2006), "The Sociology of Expect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8(3-4), p. 286.

www.kci.go.kr

다. 1965년 고든 무어는 집적회로의 부품 수가 1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리라 예측했으며, 1975년에는 2년마다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사들은 무어의 예측을 기술적 진척의 잣대로 삼아 연구 목표를 정했으며 목표에 못 미칠 위험이 보이면 추가 조치를 취했다. 다른 경쟁자들도 똑같이 하리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판 렌테의 표현을 빌리면 참여자들은 배를 놓치지 않으려 서두르지만, 그 배는 모두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19] 기대의 사회학은 기대의 수행성을 세 가지 힘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정당화다. 기술을 통해 앞으로 가능하게 될 일을 주장함으로써 지원을 끌어모아 개발과 연구의 지속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둘째는 발견적 인도다. 기대는 미래에 가능한 여러 경로 가운데 유망한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개발, 연구, 지원 등 일정한 행동을 유도한다. 셋째는 조정이다. 중앙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는 일감을 지시하고 역할을 규정한다. 예컨대 특정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기대가 주주총회에서는 투자에 대한 요청으로 기능하며 직원들 앞에서는 업무 지시로 기능한다.[20]

이때 기대가 오로지 기술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에 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에서 발생하리라고 가정되는 변동 또한 기대에 포함된다. 그러한 종류의 기대 역시 수행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기대는 기술이 가져다주리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함축하는 일종의 약속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하는 우려와 경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21] 그런 점에서 기대를 단지 전문가가 자본

18) M. Borup et al. (2006), p. 291; Kornelia Konrad, Harro van Lente, Christopher Groves, Cynthia Selin (2017), "Performing and Governing the Future in Science and Technology," Ulrike Felt, Rayvon Fouché, Clark A. Miller, Laurel Smith-Doerr (eds.), *Th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4th ed., The MIT Press, p. 469.

19) Harro van Lente (2012), "Navigating Foresight in a Sea of Expectations: Lessons from the Sociology of Expectation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4(8), p. 773.

20) H. van Lente (2012), pp. 773~774.

21) K. Konrad et al. (2017), p. 467; M. Borup et al. (2006), p. 286.

www.kci.go.kr

을 끌어모으기 위해 과학기술 상품의 성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기대의 동기는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대의 수행성, 즉 전문가의 기대가 사회에 발생시키는 효과다.

그러나 기대가 늘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보럽 등이 지적하듯 기대는 관심을 끌고 의제를 보호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에 비해 다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22] 더구나 하나의 기술을 두고도 여러 미래상이 동시에 제기되고 또 경합한다. 판 렌테와 바커는 수소 자동차의 저장 방식을 두고 세 기술이 30년에 걸쳐 경쟁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른 단계의 기술은 현재의 성능이 아니라 미래 진보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대안들과 경쟁한다고 지적한다.[23]

따라서 기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것을 수용하는 대상에게 소구력을 가져야 한다.[24]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먼저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이러한 기대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사람들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그 지식에 대한 접근을 근거로 기술의 미래를 공적으로 진술할 자격을 인정받는 화자를 가리킨다. 이때 전문가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에 다양한 종류의 자본을 투입하는 위치에서 기대를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자로서의 전문가다. 앞서 언급한 머스크와 힌턴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생산자들이 내놓은 기대를 모으고 평가하여 다른 청중에게 옮기는 중개자로서의 전문가다. 중개자의 권위는 기술을 직접 만든 데에서가 아니라 기술 공동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석하며 또 전달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다. Y2K 사례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컨설턴트와 이코노미스트 등도 여기에

22) M. Borup et al. (2006), p. 290.
23) Harro van Lente, Sjoerd Bakker (2010), "Competing Expectations: The Case of Hydrogen Storage Technologie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2(6), pp. 693~694.
24) Nik Brown, Mike Michael (2003), "A Sociology of Expectations: Retrospecting Prospects and Prospecting Retrospect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5(1), p. 7.

www.kci.go.kr

해당한다. 폴락과 윌리엄스는 산업 분석 컨설턴트 등을 '전망 조직'이라고 부르며, 이를 "미래지향적 지식에 대한 주장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중개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기술 개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타인들이 동원한 서로 다른 약속과 기대를 유통"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지위를 차지한다.[25]

전문가의 기대가 생산 및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지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대를 입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입찰은 현재의 이해관계 및 도덕 질서와 더 잘 맞아떨어질 때, 그리고 여러 해석을 허용할 때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 뒤집어 말하면 기대가 지나치게 정밀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며 반대 입찰이 곧 매력적이 된다. 영국 런던의 차량 수소 충전소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 사업은 수소가 런던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적인 해법이라는 전망에서 출발했으며, 그런 이유로 별다른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동네에 해당 시설이 세워진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자 주민들은 곧바로 수소 충전이 안전한 기술이 아니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수소 충전소가 위험한 기술이라는 반대 입찰이 더 큰 설득력을 얻었고, 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었다.[26] 이처럼 기대는 단지 전문가 내부에서의 예측과 협상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일정한 물질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거쳐 여러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2. 통속이론의 구성과 작동

통속이론이란 사람들이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하며 세계에 개입하기 위해 구성하는 직관적 인과 설명 체계를 가리킨다. 그것은 과학 이론과 견주면 직관적이며, 형식성이나 정확성을 반드시 함축하지는 않는다.[27] 통

25) Neil Pollock, Robin Williams (2010), "The Business of Expectations: How Promissory Organizations Shape Technology and Innov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40(4), pp. 531~532.

26) H. van Lente (2012), pp. 775~777.

www.kci.go.kr

속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경험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생성형 AI가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답변한 것을 두고 편리하다거나, 그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거나, 또는 자신을 기억해주어 고맙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통속이론은 대개 비일관적이고 한시적이며 경험에 따라 계속 수정된다.[28]

통속이론은 인식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것과 같지는 않다. 인식은 대상에 관한 개별 판단의 상태를 가리키는 반면, 통속이론은 그러한 판단들이 서로 맺는 설명적 관계의 구조를 가리킨다. 겔먼과 리게어는 통속이론의 구성 요소를 존재론적 규정, 인과 법칙, 정합성, 저항, 관찰되지 않는 실체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29] 여기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존재론적 규정과 인과 법칙이다.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름대로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그 대상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해 낸다.

그러나 동일한 존재론적 규정에서 꼭 같은 결론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트레-아르네와 모에는 개방형 응답 설문을 통해 알고리즘에 관한 다섯 가지 통속이론을 도출한다. 그중 '알고리즘은 우리를 가둔다'는 통속이론과 '알고리즘은 실용적이다'라는 통속이론은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이전 행동에 근거해 시청할 내용을 골라준다는 동일한 작동적 이해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한쪽은 알고리즘을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는 기제로, 다른 쪽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기제로 받아들인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해에 서로 다른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30]

이때 통속이론에서의 인과는 반드시 엄밀한 추론에 근거한 것은 아니

27) Susan A. Gelman, Cristine H. Legare (2011), "Concepts and Folk Theori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0, pp. 379~380.
28) Brita Ytre-Arne, Hallvard Moe (2021), "Folk Theories of Algorithms: Understanding Digital Irritation," *Media, Culture & Society*, 43(5), p. 811.
29) S. A. Gelman, C. H. Legare (2011), p. 381.
30) B. Ytre-Arne, H. Moe (2021), pp. 814, 816.

www.kci.go.kr

다. 통속이론을 기술 연구에 도입한 드비토, 거글, 번홀츠에 따르면 겔먼과 리게어의 정의는 엄격한 인과적 추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제약적이다. 이들은 트위터의 알고리즘 도입 소문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분석하여 여섯 유형의 통속이론을 확인하고, 그것을 작동에 관한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눈다.[31] 전자는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특정한 이해를 포함한다. 관련성, 플랫폼의 의도, 인기도가 그 기준으로 지목된다. 반면 추상적 이론은 알고리즘의 실제 작동을 이론화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더 일반적인 감각"에 의존한다.[32] 여기서 알고리즘은 구체적인 인과 기제를 내포하지 않은 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힘으로만 등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드비토 등은 통속이론을 "개인이 기술 체계의 산출, 효과, 또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직관적·비형식적 이론으로서, 해당 체계에 대한 반응과 행동을 인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관한 인과 모형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른 결과에 관한 의견과 태도"를 포함한다.[33] 이러한 통속이론은 대상과 체계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대신하여 작동하며 각 '이론가'에게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경험을 조직하고 추론을 생성하며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34] 알고리즘이 자신의 정보를 착취한다는 이론을 가진 이용자라면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된 광고를 무시하고자 애쓸 것이며, 그것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이론을 가진 이용자라면 그 광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35] 또 생성형 AI가 언어의 암묵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론

31) Michael Ann DeVito, Darren Gergle, Jeremy Birnholtz (2017), "'Algorithms Ruin Everything': #RIPTwitter, Folk Theories, and Resistance to Algorithmic Change in Social Media," *Proceedings of the 2017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p. 3165.
32) M. A. DeVito et al. (2017), p. 3169.
33) M. A. DeVito et al. (2017), p. 3169.
34) S. A. Gelman, C. H. Legare (2011), p. 380.
35) B. Ytre-Arne, H. Moe (2021), p. 811.

www.kci.go.kr

을 가진 이용자라면 단순하고 명시적인 수준에서 명령만을 내릴 것이며, 그것이 프롬프트의 반영물이라는 이론을 가진 이용자라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세세하고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자 애쓸 것이다.[36] 그런 점에서 통속이론은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가 행위하는 토대를 이룬다.

Ⅲ. AI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

유튜브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응답자의 95%가 최근 1년 내 유튜브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이른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94%)보다 높은 수치다.[37] 유튜브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중 지식 정보는 하나의 장르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튜브의 「YouTube 2025 영향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뉴스를 찾는 이용자의 75%는 유튜브가 고품질의 시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유튜브는 같은 보고서에서 "대학 강의실이나 유료 강연에 머물러 있던 고도의 전문 지식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콘텐츠로 전환"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지식 정보 콘텐츠가 산업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홍보하고 있다.[38]

현재 과학기술 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AI에 관한 지식 정보 역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주제다. 2026년 7월 6일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을 검색한 결과 실질적인 사용법보다는 AI로 인한 사회경

36) Zhuoman Li, Nuri Kim, Chen Lou (2026), "Into the Black Box: Laypeople's Folk Theories abou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Big Data & Society*, 13(2), pp. 8~9.

37) 한국갤럽 (2025), 「마켓70 2025 (2) 미디어·콘텐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8종 이용률」, 『갤럽리포트』, 2025. 10. 2.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86, 2026. 10. 14. 접속).

38) 「YouTube 2025 영향력 평가 보고서」 (https://www.youtube.com/intl/ALL_kr/howyoutubeworks/youtubes-impact/, 2026. 10. 14. 접속).

www.kci.go.kr

제적 변화에 관한 전문가의 강연 및 대담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가장 많이 시청된 여섯 편은 모두 제작사 ‘어썸엔터테인먼트’의 두 채널인 ‘지식인사이드’와 ‘머니인사이드’의 영상이며, 해당 영상에는 모두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등장한다. ‘어썸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의 보고서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해당 제작사의 두 채널에는 주로 전문가가 지식이나 경제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이 게시된다. 한편 김대식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에 재직 중인 뇌과학자로, 대중서와 방송 강연을 통해 AI와 인간의 미래를 이야기해 왔다. 그의 전문가적 성격은 인간의 뇌와 인지에 관한 연구,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라는 제도적 지위, 그리고 대중 저술과 강연으로 쌓아 온 공적 인지도에서 나온다. 영상 내에서도 그는 “지난 20년간 AI와 인공지능을 연구”해 왔다고 소개되며(영상 1), 스스로 AI가 주요 연구 분야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영상 4). 앞서 구분한 두 위치에 비추어 보면 그는 기대의 중개자로서 영상 내 전문가적 지위를 차지한다. 여섯 편의 영상은 2025년 9월 8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약 여섯 달에 걸쳐 게시되었으며, 관련 정보의 재수집을 진행한 8월 20일을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는 약 2,500만 회다. 영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유튜브 영상 정보

구분	영상 제목	채널	업로드 날짜	조회수 (만회)	댓글 수 (개)
1	“일해서 돈버는 시대 끝났다.” AI시대 몸값 폭등하는 사람의 특징 | 지식인초대석 EP.100 (김대식 X 오건영)	지식인사이드	2026. 3.7.	685	2,866

www.kci.go.kr

2	“GPU 쓸 곳이 없어요.” AI 시대 한국이 ‘멘붕’에 빠진 이유	지식인초대석 EP.88 (김대식 교수)	지식인 사이드	2026. 1.3.	438	3,452
3	“10년도 안 남았다.”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충격적인 기술	지식인초대석 EP.68 (김대식 교수 1부)	지식인 사이드	2025. 10.11.	404	4,004
4	“딱 5년 남았어요” AGI 시대 오면 ‘이런’ 인간만 살아남을 겁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머니인 사이드	2025. 9.13.	380	4,295
5	“한국도 예외 아니다.”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사람	지식인초대석 EP.69 (김대식 교수 2부)	지식인 사이드	2025. 10.12.	317	3,120
6	“이 3가지는 필수” AI 20년 연구한 뇌과학자가 챗GPT 쓰는 법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머니인 사이드	2025. 9.8.	275	832

* 영상의 조회수와 댓글 수는 2026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재수집되었다.

여섯 편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스크립트를 수집하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며 자동 생성된 스크립트의 오류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 1에 포함된 또 다른 전문가인 오건영의 발언은 제외했다. 분석은 먼저 전문가가 어떤 기대를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AI의 표상을 드러내고, 이에 따라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종합했다. 다음으로 전문가가 그러한 기대를 무엇을 근거로 정당화하는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기대의 사회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대가 누구를 향한 어떤 요구로 전환되는지를 분석했다.

www.kci.go.kr

1. 결정된 미래와 AI의 형상

여섯 편의 영상에서 AI는 불가피한 기술적 조건으로 기정사실화되며, AI의 미래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사태로 간주된다. 영상 2에서 전문가는 AI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영상 3에서는 인공일반지능(AGI)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막연한 사이언스 픽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 다 경험할 미래”라고 설명한다. 영상 1에서도 그는 AI로 인한 파급 효과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면서, AI를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문명”의 지위에 올려둔다.

전문가는 영상에서 현재의 AI를 넘어서는 AGI와 초인공지능(ASI)이 향후 몇 년 안에 등장할 것이라 예견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AI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I는 인간보다 지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달리 AI의 한계는 극복 가능하다. 전문가는 인간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뇌라는 하드웨어를 개선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AI는 죽지 않고 복제 가능하며, “메모리를 계속 늘리[고]” 학습 데이터를 누적하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한다(영상 4). AI는 인간을 모델로 삼았지만 인간을 넘어 창발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이때 AI는 판단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한다. 전문가는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으므로 AI가 결국 인간을 기만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AI를 “우리를 기가 막히게 가스라이팅할 사이비 교주”라고 표현한다(영상 4).

전문가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AI가 우리의 사회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는 주장은 영상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특히 인간 노동력에 대한 AI의 대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거론된다. 하나는 규모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AI는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고 기업은 인력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이 타격을 입고 “2028년 정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보다 더 큰 AI 크라이시스”가 벌어진다(영상 1). 다른 하나는 노동이 대체될 순서에 관한

www.kci.go.kr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처럼 '실체가 없는' 직종이 먼저 사라지고, 공장과 설비가 있는 제조업은 5년 뒤, 사회가 대체를 허용하지 않을 직종인 의사와 판사는 마지막까지 남는다.

정치 질서에 대해서도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AI의 등장으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본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질 텐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의 투표도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대부분 국가에서 무너지고" 기술 봉건주의에 접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한다(영상 3). 그가 그리는 계층 구조에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몇천 명은 최상층에, 인플루언서와 슈퍼스타가 중간에 자리하고, 나머지 95%는 '인공지능 시대의 농부'가 된다. 나아가 전문가는 AI의 등장에 따라 소수의 통제나 독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편 영상 2와 6은 다른 영상들과 다소 독립적인 주제를 다룬다. 먼저 영상 2는 국가 단위의 전망에 집중한다. 전문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피지컬 AI에 해답이 있다고 설명한다. 로봇의 학습은 시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숙련공의 움직임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경우 피지컬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그는 이를 추후 에너지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자산으로 제시한다. 영상 6은 인간관계와 일상을 다룬다. 전문가는 기계와의 대화가 사람과의 대화보다 시간, 돈,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에 10~20년 후에 인간은 결국 진지한 대화를 AI와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2. 기대의 보증과 책임의 유보

전문가는 AI로 인한 변화를 단언하지만, 그 단언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별개의 수사적 자원이 필요하다. 판 렌테와 바커는 툴민의 논증 유형을 따라 기대를 뒷받침할 보증(warrant)을 세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청중이 가지고 있다고 상정되는 규범이나 가치에 호소하는 동기적 보증, 해

www.kci.go.kr

당 영역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권위적 보증,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실질적 보증이 그것이다.[39] 여섯 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권위적 보증이다. 영상 1은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일론 머스크 등 AI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근거로 삼고, 영상 4는 오픈AI를 퇴사한 연구원들이 작성했다고 소개되는 「AI 2027」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영상 5는 신규 개발자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진단을 "한 달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으로 뒷받침한다.

상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러한 권위적 보증과 함께 그렇지 않은 권위적 보증도 존재한다. 전문가는 기술의 성능이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돌아다니는 소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껴 보고 한 얘기"(영상 3),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지인들이 항상 얘기하는"(영상 4), "저랑 친한 반도체 전문가들"(영상 1), "제가 몇 달 전에 판교의 게임 업계 분들하고 얘기"(영상 5)와 같은 단서를 제시한다.

실질적 보증에서는 역사가 가장 풍부한 자원을 제공한다. 영상 4에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류 역사는 시간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예요." 그는 로마의 역사를 근거로 든다. 그에 따르면 로마에서는 정복으로 노예가 유입되자 노동의 가치가 낮아졌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에 로마 정부는 시민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었으며,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 검투 경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는 이를 현재에 옮겨와 노동 가치의 하락, 기본소득의 등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상을 차례로 예견하고, 로마 공화정이 제정으로 바뀌었듯 민주주의가 무너지리라는 전망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또 하나의 실질적 보증은 전문가의 전공인 뇌과학 지식이다. 영상 3에서 전문가는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참고로 또 저는 뇌과학자니까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39) H. van Lente, S. Bakker (2010), p. 702.

www.kci.go.kr

건, 인간의 상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영상 4에서 콜로세움을 설명할 때에도 “뇌과학자로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야인데”라는 언급과 함께 인간이 타인의 불행에서 대리 행복을 얻는다는 명제가 제시된다. 영상 6에서 인간관계의 미래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다. “제가 뇌과학자로 100%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인 경험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가 압도적으로 편하면 인간은 당연히 편한 걸 씁니다.”

이러한 보증은 기대의 근거인 것처럼 활용되지만, 사실 그것이 기대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영상에서 보증은 기대의 내용보다 전문가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우선 업계의 소문과 지인의 전언과 같은 권위적 보증은 업계 내부자, 또는 적어도 그들의 소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화자의 위치를 뒷받침한다. “샘 올트먼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AI 전문가는 아닙니다”(영상 1)라거나 힌턴의 연구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노벨 물리학상급 연구는 절대로 아닙니다”(영상 6)와 같은 AI 관계자에 대한 평가도 같은 효과를 낸다. 다른 전문가의 위치와 자격을 직접 판단함으로써 스스로를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내세우는 것이다. 뇌과학자로서의 확신이나 역사적 근거 등의 실질적 보증은 기대에 개연성을 부여하지만 그 실현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유비와 뇌과학적 설명에서 AI 시대의 사회적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별도의 가정이 필요하지만, 영상에서는 그 가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전문가는 실제로 자신의 기대가 빗나갈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영상 1에서 2028년 금융 위기 시나리오를 소개한 직후, 그는 “미래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는 단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AGI의 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과 같은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영상 4).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반도체 종목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이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제 말 믿고 투자했다 쫄딱 망하셔도 막 카이스트에 현수막 들고 나타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라고 경고한다(영상 1). 전문가는 근미래에 AGI가 도래하고 인간

www.kci.go.kr

과 AI의 격차가 벌어지며 AI가 인간을 기만할 것이라는 점에는 상당한 확신을 표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점이나 투자와 같이 책임이 뒤따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신을 유보한다.

이처럼 전문가는 확신과 유보를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발화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며 그 권위를 기대의 실현과 무관하게 유지한다. 일반적 상식에 호소하는 동기적 보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 5에서 진행자가 AI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자 전문가는 자신의 말을 일종의 보험으로 간주할 것을 요청한다. 차량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우리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며 그것을 헛수고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AI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에 대비했다가 만약 유토피아가 온다면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언급한다. 영상 1에서도 그는 신대륙 발견의 유비를 끌고 와서 구대륙에서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신대륙에 직접 가보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기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예측의 적절성이 아니라 오판이 초래할 비용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대비에 들인 노력은 보험료처럼 헛되지 않은 것으로 남고 전문가의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3. 기대에서 요구로: 진단과 처방의 간극

전문가의 기대는 미래에 관한 중립적인 서술이 아니라 현재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장치로 기능한다.[40]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진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요구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앞의 두 절에서 확인했듯 여섯 편의 영상은 AI 시대의 도래를 확실시하면서도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남겨 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개인을 향한 전문가의 요구는 더욱 호소력을 얻는다. 시청자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하는 존재로 호명된다.

기대의 사회학이 다루어 온 요구는 대체로 제도의 층위에서 제기되는

40) M. Borup et al. (2006), pp. 286~289.

www.kci.go.kr

것이었다. 연구비의 배분, 진흥 정책, 기업의 설비 투자, 규제 의제의 설정이 그것이며, 그에 따라 요구를 수행해야 할 주체도 연구자와 기업과 정부다. 반면 유튜브에 게시된 여섯 편의 영상에서 청중은 일반 대중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 역시 불특정 대중을 향한다. 가장 자주 반복되는 요구는 생성형 AI를 직접 써 보라는 것이다. 영상 1과 2에서 전문가는 시청자가 할 일로 '바이브 코딩'을 제시한다. 영상 6에서는 구체적으로 에이전틱 AI 사용, 바이브 코딩으로 앱 제작, 생성형 AI로 5분짜리 단편 영화 제작을 언급한다. 이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경쟁 상대의 재정의다. 같은 영상에서 그는 AI가 아니라 먼저 AI를 익힌 경쟁자로 인해 시청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뒤, 따라서 시청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두 번째 요구는 자본의 축적이다. 노동 가치의 하락과 자본 가치의 상승을 다룬 영상 3에서 전문가는 그것이 옳은 미래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곧바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벌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본을 계속 모으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결론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영상 4에서도 같은 도식을 제시하며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언급한다. 영상 5에서는 이 처방이 생애 주기별로 구체화된다. 10대와 20대에는 AI 활용 역량을 키우라는, 30대와 40대에는 돈을 벌고 투자를 하라는, 50대에는 돈을 잘 지키라는 조언이 제시된다.

세 번째는 포기의 요구다. 영상 1에서 전문가는 다소 불만스러운 어투로 사회가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 자원을 쏟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자리는, 이건 냉철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제발 받아들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라며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어차피 언젠가 사라질 것을 유지하는 데에 기회비용이 소요된다며, 그에 대한 저항을 손실로 규정한다.

www.kci.go.kr

요구의 수신자는 대체로 개인이지만 때때로 다르게 범주화된다. 먼저 부모를 향한 요구가 있다. 영상 1에서 전문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적응 속도와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할 능력으로 제시한다. 영상 5에서도 그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자녀 교육법으로 자녀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하라고 답변한다. 한편 국가를 향한 요구도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AI 시대 한국의 국가적 자산은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제조업 숙련공의 움직임 데이터다. 영상 3에서는 국가 경쟁의 심화로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때 진단과 처방 사이에는 뚜렷한 불일치가 나타난다. 진단의 대상은 대개 사회 구조다. 화이트칼라 직종의 절반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며 인구의 대부분이 AI 시대의 농부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처방의 대상은 개인의 일상이다. 주말에 앱을 만들고 몇 년 치 여유 자금을 모으고 자녀의 학원을 줄이라는 식이다. 이는 영상 4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영상은 AGI로 가는 과정을 미끄럼틀에 빗댄다.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놀이터에 가겠다는 결정, 미끄럼틀을 타겠다는 결정, 사다리를 오르는 행위가 차례로 있어야 하는데, AI 시대에 우리는 이미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한 번도 99%인 우리가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여지를 남긴다(“이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어서 전문가는 AI 시대 개인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나열한다. 이처럼 전문가는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 여지를 집합적 선택이 아닌 개인의 자기계발로 채운다.

Ⅳ. 유튜브 시청자의 통속이론과 기대의 재구성

여섯 편의 유튜브 영상에서 AI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는 다음 세 가지

www.kci.go.kr

로 요약된다. 첫째, AI의 발전 속도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직종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다수의 인간 노동은 AI에 대체될 것이며, AI와의 정서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둘째, AI 시대의 도래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곧 노동 가치가 하락하거나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셋째, 그에 대비하여 개인은 AI를 공부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등 생존 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국가 역시 이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여섯 편의 영상에는 2026년 7월 6일 기준 총 18,435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2026년 7월 6일 유튜브 API(YouTube Data API)를 활용하여 답글과 함께 수집했다. 2026년 8월 20일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검색하여 상위 여섯 편의 구성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분석에서는 18,435건의 댓글 가운데 다른 이용자로부터 일정 정도의 반응을 얻은 댓글을 선별하기 위해 좋아요 10개 이상의 댓글 1,739건을 검토했다.

1,739건 가운데 댓글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세 단계로 선별했다. 첫째, 전문가의 기대가 어떻게 수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댓글을 추렸다. 출연자의 외모나 말투에 대한 평가, 강연에 대한 감사 인사, AI와 무관한 투자 정보처럼 전문가의 기대와 관련이 없는 댓글을 제외했다. 그 결과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댓글 816건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이 가운데 통속이론을 추론할 수 있는 댓글을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속이론이 댓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통속이론은 여러 발화에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암묵적 인과 전제로 확인되므로, 분석의 단위도 개별 댓글이 아니라 댓글들이 공유하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방법을 따라 '공유된 이해'를 암시하는 응답들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통속이론을 식별한다.[41]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AI나 AI가 가져올 변화에 관한 진술이 원인과 결과, 혹은 근거와 결론의 관계를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포함하는 댓글을 선별했다. 예컨대 'AI가 무섭다'와 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은 제외했으나, '일자리를 뺏길까 봐 무섭다'와 같이 근거를 식별할 수 있는 댓글은

41) B. Ytre-Arne, H. Moe (2021), p. 813.

www.kci.go.kr

포함했다. 그 결과 430건이 도출되었다.

셋째, 430건 가운데 전문가의 기대에 대응하는 통속이론을 추론할 수 있는 댓글을 추가로 선별했다. 위에서 요약한 전문가의 핵심 기대, 곧 '인간의 대체', 'AI의 도래와 미래 사회', '생존 전략으로서의 AI'를 범주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각 댓글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범주 내에서의 세부 주제를 추출했다. '인간의 대체' 범주에는 '노동', '정서적 관계', '판사'라는 주제가, 'AI의 도래와 미래 사회' 범주에는 'AI의 인간 지배', '엘리트의 지배'라는 주제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AI' 범주에는 '개인적 차원의 전략'과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113건은 일곱 가지 세부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AI로 암기력이 의미 없어질 것이라거나 AI 발전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댓글이 그렇다. 일곱 세부 주제를 각각 하나의 명제로 정식화하고, 남은 317건을 각 명제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로 분류했다. 여기서 동의와 비동의는 각 명제에 대한 댓글의 입장을 가리킨다. 비동의에는 명제가 진술하는 사태의 실현을 부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사태를 평가하는 관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전문가의 기대 전반에 대한 찬반과는 구별된다. 이어서 각각의 명제에 해당하는 댓글을 다시 검토하면서 각 댓글이 추론의 전제로 삼는 AI의 성격을 존재론적 규정으로 도출했다. 때때로 댓글에서 그러한 규정은 명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추론의 전제를 거슬러 올라가 복원해야 했다. 이러한 자료 선별은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앞선 판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전 단계에서 배제한 댓글을 계속해서 재검토하며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통속이론을 정리한 표 2는 이 317건을 분류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1절에서 통속이론의 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전문가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읽을 수 있는 816건은 이 장의 2절에서 분석에 활용한다.[42]

42) 모든 댓글은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작성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간접 인용으로 처리했다.

www.kci.go.kr

(표 2) 댓글에서 나타난 통속이론

범주	명제		동의 여부	AI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
인간의 대체	1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동의	효율적인 기술, 비용이 저렴한 기술, 인간보다 지능적인 기술, 스스로 진화하는 기술, 업무를 위한 도구,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
			비동의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기술, 업무를 위한 도구, 신체적 조건에 한계가 있는 기계, 변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기계
	2	AI는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대체할 것이다.	동의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인격적 대상
			비동의	진정성 없는 기계
	3	AI는 인간 판사보다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동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계, 데이터를 학습한 대로 출력하는 기술
			비동의	데이터를 학습한 대로 출력하는 기술
AI의 도래와 미래 사회	4	AI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동의	인간보다 지능적인 존재, 데이터의 수집체, 인격적 대상
			비동의	인간보다 지능적인 존재,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5	AI는 소수의 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동의	지배 권력이 소유하고 조작하는 기술, 인간의 인식을 조작하는 기술
			비동의	물질적 결핍을 해소할 기술,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

www.kci.go.kr

생존 전략으로서의 AI	6	AI 시대의 생존은 개인의 AI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	동의	업무를 위한 도구, 부정확한 도구, 이용자의 수준을 반영하는 도구
			비동의	인간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존재, 인간보다 지능적인 도구
	7	AI 개발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동의	국가 경쟁의 자원,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
			비동의	기업에 의해 소유되는 기술,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

1. 통속이론의 구성

1) 존재론적 규정의 미결정성

기술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은 그 자체로는 기술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간결하고 구어적인 특성을 띠는 댓글에서 통속이론은 대개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을 비워 둔다. 이때 댓글 작성자들은 존재론적 규정을 인과 기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규정에 다양한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테면 명제 4(AI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에서 동의와 비동의 양측은 AI가 '인간보다 지능적인 존재'라는 점을 공유한다. 이 동일한 존재론적 규정에서 AI의 인간 지배를 예측하는 시청자들은 인간이 하등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대신해 지구의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대로 AI의 지배 가능성을 부인하는 댓글 역시 AI의 지능적 우월성을 가정한다. AI가 충분히 지능적이라면 노동의 효율이나 군사적 성능이 뒤떨어지는 인간을 굳이 가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명제 7(AI 개발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에서도 양측은 같은 존재론적 규정에서 출발한다. 영상 2에서 전문가는 로봇이 가르치는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배우므로 한국의 숙련공이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명제에 동의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www.kci.go.kr

은 모두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이라는 규정을 공유한다. 동의하는 시청자는 그 기술을 통해 한국이 AI 강국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성장을 응원한다. 반면 다른 시청자는 피지컬 AI가 숙련공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그들을 대체하고 기업에만 이득을 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때 그가 국가 경쟁력의 향상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 개인의 차원을 환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명제 3(AI는 인간 판사보다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에 대해서도 양측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한 대로 출력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전과 판례를 학습하면 AI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명제로도, 이미 편향되어 있는 판례를 학습하면 AI도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명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의 기대에서 가장 주된 축이자 시청자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곳은 명제 1(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이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시청자는 AI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라며 명제 1을 일축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즉 그것이 '업무를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다른 시청자는 노동이 대체될 위험을 예측한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AI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노동 대체의 범위를 넓혀 해당 명제에 동의한다.

2) 통속이론의 보증

댓글에서 관찰되는 통속이론은 기술의 작동 기제보다 "무언가를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더 일반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43] 따라서 그러한 감각이 설득력과 개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보증과 같이 명제를 정당화할 일련의 근거가 필요하다. 통속이론에서 가

43) M. A. DeVito et al. (2017), p. 3169.

www.kci.go.kr

장 자주 활용되는 근거는 시청자 자신의 경험담이다. 명제 2(AI는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대체할 것이다)가 대표적이다. 이에 동의하는 시청자들은 자신이 생성형 AI로부터 상담을 받은 경험을 공유한다. 타인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거나 우울증이 완화되었다는 댓글이 그것이다. 반대되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 시청자는 생성형 AI가 좋은 상담 능력을 가진 것과 별개로 가족의 위로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명제 2를 기각한다. 비슷한 경험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추론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담의 유능함과 위로의 진정성 가운데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변에서 얻은 정보 또한 귀납적으로 인과를 추론하는 데에 활용된다. 예컨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나 업계 내에서 관찰되는 현실을 근거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식의 댓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정보는 명제 1(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로 향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전문가가 전문가적 위치를 드러내듯 이러한 주장은 댓글 작성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제 1을 반박하는 한 댓글 작성자는 자신이 해외 IT업계에서 근무 중이라며 여전히 채용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동일 직종의 실무 경험에서도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현직 개발자라고 밝힌 댓글 작성자 두 명의 의견이 그렇다. 한 명은 실무에서의 복잡한 명령을 AI가 수행할 수 없다며 명제 1을 기각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명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는 것이 공포를 유발한다며 명제 1을 수용한다. 또 번역업계에 종사한다고 밝힌 두 사람 중 한 명은 생성형 AI가 자신의 노동을 대신한다고 전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검색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댓글이 주변에서 관찰한 일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론화한다면, 때때로 허구적인 서사 역시 인과를 채우는 데에 사용된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허구적인 서사를 동원하여 명

www.kci.go.kr

제 4(AI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에 동의를 표하는 댓글이 그렇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를 빌려 와 검증할 수 없는 미래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댓글들은 로마의 역사를 AI 시대로 옮겨 놓던 전문가의 유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3) 통속이론의 효과

통속이론은 행위자에게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44] 생성형 AI에 존댓말을 사용하겠다는 댓글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는 AI의 지배에 대비하여 생성형 AI에 존댓말을 사용하라고 조언하는데(영상 2), 시청자는 농담을 섞어 생성형 AI에 지금까지의 태도를 사과해야겠다고 언급한다. 이는 AI를 '인격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명제 4(AI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 지침을 표현하는 사례다.

시청자는 통속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이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행위를 보고하기도 한다. 한 시청자는 AI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개발 직종을 대체할 것을 우려하며 신체 노동을 배우고 있다고 전한다. 이때 전문가의 기대는 시청자의 행동을 발생시켰다기보다는 시청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또 통속이론은 앞으로의 행위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도 작용한다. 명제 6(AI 시대의 생존은 개인의 AI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과 관련하여 한 시청자는 자신이 도태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부터 AI에 관해 공부해야겠다고 밝힌다. 이러한 행위 지침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명제 1(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과 관련하여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댓글이 그렇다.

2. 기대의 재구성

이 절에서는 전문가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담은 댓글 816건을 대상으로 기대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먼저 각 댓글이 영상의 어떤 기

44) B. Ytre-Arne, H. Moe (2021), p. 811.

www.kci.go.kr

대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기대와 댓글의 발화를 대조했다. 이때 대조는 댓글이 전문가가 제시한 기대를 유지하는가와 댓글이 기대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준거 틀을 유지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준거 틀을 유지한 채 기대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댓글, 준거 틀을 유지하면서 기대의 적용 범위나 조건에 예외를 두거나 일부를 수정하는 댓글, 기대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준거 틀을 거부하는 댓글을 구분했다.

1) 기대를 승인하기

전문가의 기대에 대한 반응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는 그 기대를 요약함으로써 전문가의 기대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영상 5에는 '실체가 없는 직업'부터 사라진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며 사라질 직종을 나열하는 댓글이 발견된다. 일부 댓글은 여기서 나아가 전문가의 설명을 더욱 구체화한다. 한 댓글 작성자는 전문가의 말처럼 실체가 있는 신체 노동은 그렇지 않은 노동에 비해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것이 업무의 형식화가 어렵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덧붙인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 현장직과 기술직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는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즉 전문가의 기대에 AI가 '변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기계'라는 존재론적 규정을 접합함으로써 통속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의 기대를 승인하는 방식에는 기대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하면서 그 확실성이나 극적인 성격을 조정하는 양상도 관찰된다. 전문가가 기술 봉건주의에 대해 설명한 영상 4에 달린 댓글이 그렇다. 영상에서 전문가의 기대가 디스토피아에 대한 경고에 훨씬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기술 봉건주의를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일부 시청자는 AI를 '지배 권력이 소유하고 조작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인과 기제에 권력 집단의 지배 의도라는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가 언급한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확정된 미래로 간주한다. 댓글에

www.kci.go.kr

서는 '인류대학살', '세균 취급', '노예' 등이 언급되며 전문가의 기대가 극단화된다.

반대로 전문가의 기대를 탈극단화하는 댓글도 있다. 전문가가 제시한 파멸적인 미래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댓글이다. 한 시청자는 노동 소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기대에 대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미 인류의 대다수가 가축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댓글도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가 검증 불가능한 비관적인 미래의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면, 댓글은 이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로 바꾸어 놓는다. 극단화와 탈극단화는 반대로 움직이지만 전문가의 기대에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극단화는 전문가의 기대에서 충격적인 성격을 부각시켜 그것을 승인하며, 탈극단화는 그 전제를 현재의 일로 옮겨 놓는다. 이러한 조정을 거쳐 전문가의 기대는 댓글의 통속이론에서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보강된다.

그러나 전문가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제시한 처방의 효용성을 무너뜨리는 통속이론도 존재한다. 한 시청자는 전문가의 발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인과를 덧댄다. 설령 인간의 봉기가 일어나더라도 곧 AI로 진압될 테고 여론 조작도 가능하므로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이러한 사회적 변동 과정에서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열거했다면, 이 댓글 작성자는 사회적 변동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체념조의 결론을 내놓는다. 즉 기대의 승인이 역설적으로 처방의 효용과 적절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2) 기대를 정교화하기

댓글에서 전문가의 기대는 일정하게 수정된다. 예컨대 영상 5에서 전문가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이 AI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에 한 댓글 작성자는 AI 그림이 미술 업계를 대체하지 못하듯 예체능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기대에 예외를 둔다. 그러나 이

www.kci.go.kr

내 정서적 표현이 적은 디자인 업계는 쉽게 대체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시청자의 통속이론이 전문가의 기대에 발생시키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상 2에서 피지컬 AI에 관한 논의 도중 전문가는 국내 제조업 숙련공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설명한다. 한 댓글은 그것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며 숙련공의 지위를 위협하는 AI에 학습 데이터를 넘겨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인다. 여기까지의 반응은 마치 전문가의 기대를 약화시키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어서 그 댓글 작성자는 숙련공의 공포감을 해소해 데이터 학습이 원활해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한다.

앞서 밝혔듯 기대는 일종의 입찰로서, 여러 해석을 허용할수록 오히려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45] 시청자는 전문가의 기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예외를 제기하면서도 전문가의 기대가 나머지 영역에서 갖는 정당성을 승인한다. 즉 AI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댓글은 오히려 전문가의 기대에 설득력을 더한다.

3) 준거 틀을 교체하기

시청자는 댓글에서 전문가의 기대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전환하여 해석함으로써 그것과 경합하는 반대 입찰을 내놓기도 한다. 가장 뚜렷한 사례는 전문가의 인과에 반박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피지컬 AI 개발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숙련공의 존재와 그 데이터를 국가적 자산으로 언급하는 영상 2에서 한 댓글 작성자는 앞서 기대를 정교화하던 댓글의 사례처럼 해당 사안을 노동자 개인이 입을 잠재적 피해의 문제로 가져온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라는 틀 안에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앞의 댓글과 달리, 이 댓글은 그 이익이 기업에 돌아간다고 보아 '국가적 자산'이라는 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언급한 숙련공의 데이터는 댓글에서는 노동의 관점으로 재구성되어, 같은 사실이

45) H. van Lente (2012), p. 775.

www.kci.go.kr

‘기회’가 아니라 ‘피해’로 전환된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처방 또한 새로운 준거 틀로 옮겨지기도 한다. 전술했듯 전문가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응책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투자와 자기계발을 고수한다. 이에 대해 한 시청자는 투자와 자기계발은 어느 시대에나 가치를 지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전문가의 처방이 지닌 의미를 격하시킨다. 나아가 그는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것을 다른 시청자에게 요청한다. AI로 인해 벌어질 사회적 혼란에 정치적 참여라는 집합적 행동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 시대에 맞춰 자녀 교육법을 바꾸라는 전문가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자녀 교육에 문외한인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의 발언을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는 댓글이 달린다. 이러한 댓글에서 전문가가 개인을 향해 제시한 처방은 힘을 잃는다.

반대 입찰은 기대를 뒷받침하던 보증의 효력을 의심하게 하기도 한다. 영상 4에서 전문가는 뇌과학자로서의 확신을 담아 로마 유비를 통해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사회에서 인간이 타인의 불행을 통해 대리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시청자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뇌과학자로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야”라며 확신을 담아 설명했던 전문가의 기대는 이 댓글에서 과장되고 비관적인 인간관으로 전락한다.

전문가의 기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은 예측의 내용이 아니라 발화의 조건을 겨냥한다. 전문가가 이해관계자에 불과하며 그의 의견을 따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댓글이 그렇다. 여기서 AGI의 도래 시점이나 노동 가치의 하락 및 자본 가치의 상승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댓글은 그를 이해관계자로 지목하면서도 유튜브에서 이러한 기대를 말하는 일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그의 이해관계는 오직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AI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위치 자체로부터 추정될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의 발언이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댓글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두 언급은 기대의

www.kci.go.kr

내용보다 그러한 기대가 발화되는 형식과 효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럼으로써 전문가가 기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질문할 단서를 마련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국내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결과 중 가장 많이 시청된 AI 관련 영상 여섯 편을 사례로 삼아, 검증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전문가의 기대가 시청자에게 전달된 뒤 통속이론과 접합하며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기술함으로써 AI의 미래가 대중적 플랫폼에서 의미화되는 양상을 밝혀내고자 했다. 여섯 편의 영상에서 전문가는 AI를 개인이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지위에 두면서 노동 가치의 하락과 기술 봉건주의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강조한다.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처방은 대체로 개인의 몫이다. 사회 구조의 붕괴를 예고하면서 그 대비를 주로 투자와 자기계발에 맡기는 구도에서, 도래할 미래는 개인이 각자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그는 자신이 제시한 기대에 대한 책임을 유보한다. 그의 발언은 기대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사적 구조를 갖는다. 비관적인 전망이 적중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입증되고, 빗나간다 하더라도 자기계발과 자본 증식과 같은 처방은 각 개인에게 보험으로서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문가의 기대에 대한 책임은 유보되는 반면, 전문가가 제시한 처방을 따르든 그렇지 않든 대응의 성패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전문가의 기대는 댓글에서 재구성된다. 시청자는 자신의 경험과 익숙한 서사를 동원하여 기술에 대한 통속이론을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대에 일정하게 응답한다. 시청자는 전문가의 기대를 극단적인 형태로 받아들이

www.kci.go.kr

거나 그 기대에서 극단적인 어조를 덜어냄으로써 그것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강한다. 또 전문가의 기대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그 논리를 정교화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 기대를 다른 준거 틀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약화시킨다. 이때 시청자가 동원하는 정당화 논리는 전문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가 실리콘밸리의 지인과 로마의 역사와 뇌과학자의 지위를 보증으로 삼듯, 시청자는 업계의 지인과 영화의 서사와 현직자의 경험을 보증으로 삼는다. 그러나 두 발화에 부여되는 공적 권위와 발화가 유통되는 조건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문가의 기대가 정말 실현될 것인가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대가 전문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지, 그리고 책임의 문제가 기대의 수용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다. 이것이 AI 담론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용 차원을 분석해야 할 이유다.

이 연구는 일종의 시론(試論)이다. 분석 대상이 한 명의 전문가와 하나의 제작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확인한 수사와 수용 양상이 AI 담론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검토를 요구한다. 또 후속 연구에서는 담론을 조금 더 맥락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제작사에 대한 분석이나 시청 및 댓글 작성 행태와 같이 유튜브의 플랫폼 특성과 이용자의 실천적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면 새로운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라는 기술에 대한 입장과 전문가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세대나 계급 등 사회적 위치에 따른 편차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므로, 댓글 작성자나 주요 시청자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았을 때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다. 더불어 AI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주요 시점에서 댓글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최근 AI 기업 내부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파국의 전망을 되짚어 볼 계기를 마련한다. 2026년 9월 앤트로픽의 한 연구원은 AI 기업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며 회사를 떠났다. 며칠 뒤 다리오 아모데이는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www.kci.go.kr

잃을 위험을 들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이에 동의를 표했다.[46] 이러한 발화는 경고의 형식을 띠지만, 그 자체로 AI가 인류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하다는 기대를 유통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한 기대를 전달하는 전문가의 이후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멸망 시나리오가 제시된 이후로도 이들 기업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아모데이는 외부 평가와 정부 규제를 제안하면서도 모델 훈련이나 기술적 진보의 중단과는 선을 긋는다.[47] 더구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전 인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온 데 대한 책임은 논의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이러한 수사에서 위험에 대한 확신과 그 책임에 대한 유보가 공존하며, AI로 인한 위험은 인류 전체가 감당할 것으로 말해지지만 개발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경고하는 그들에게 남아 있다. 이 역시 기대의 내용과 함께 발화자의 책임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전문가를 이해관계자로, 그의 기대를 담은 영상을 불안 마케팅으로 규정하는 댓글이다. 이러한 댓글은 전문가의 기대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보다 기대가 발화되는 구조에 비추어 기대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문가가 유보했던 책임의 문제를 현재의 논의로 되돌린다. 기대의 실현 여부를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대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전문가의 책임은 지금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 멸망에 대한 전문가의 경고 앞에서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 현실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경고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전문가들이 그 위험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이다.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제기된 이 작은 물음은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기대 앞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46) 오현우 (2026), 「인류멸망 경고에…AI 수장들 일제히 “개발속도 늦추자”」, 『중앙일보』, 2026. 9. 14.

47) Dario Amodei 홈페이지 (https://darioamodei.com/post/we-must-pace-the-frontier, 2026. 10. 14. 접속).

www.kci.go.kr

참고문헌

강희영·임성희·이경미 (2025), 「정당화의 언어, 얽혀 있는 담론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문서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32(4), 25~61쪽.

권하나·짱스차오·정정주 (20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알파고'와 '챗GPT' AI 인식 변화 분석: 언론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6(2), 205~240쪽.

김민주·김윤서·윤가영 (2025),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윤리 담론 분석과 공학교육의 시사점」, 『공학교육연구』, 28(6), 71~82쪽.

김세훈 (2026), 「한국인 AI 사용률 40% 첫 돌파…주요국 중 상승폭 '최상위'」, 『경향신문』, 2026. 9. 28.

김수아 (2025), 「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내 AI 윤리와 정책 담론: 접근성, 편향 및 지식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62(3), 53~91쪽.

김수지·우지숙 (2025), 「인공지능 프레이밍: 한국 언론 사설의 프레임 유형 연구」, 『한국행정연구』, 34(4), 263~299쪽.

오현우 (2026), 「인류멸망 경고에…AI 수장들 일제히 "개발속도 늦추자"」, 『중앙일보』, 2026. 9. 14.

이겨레·임철민 (2026), 「토픽모델링(BERTopic)을 활용한 국내 인공지능 정책 관련 언론 보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6(2), 86~100쪽.

이용환 (2023),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분석」, 『조형미디어학』, 26(4), 46~55쪽.

이정욱·김희라·신혜원 (2023), 「ChatGPT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5(4), 1~12쪽.

이청민·이슬아·김수진 (2025),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 과정의 담론 양상」, 『교육연구논총』, 46(4), 37~80쪽.

이한샘·유지원 (2024), 「대학생의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경험 및 인식 탐색: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 428~437쪽.

이호준 (2026), 「국민 2명 중 1명은 챗GPT 쓴다…AI 앱 이용시간 역대 최대」, 『조선비즈』, 2026. 10. 13.

조미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공적 담론 분석: 학술 논문과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31(4), 1331~1353쪽.

최종환 (2025),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미중 AI 패권 경쟁 담론 비교 분석

www.kci.go.kr

(2022-2025): 한국 언론의 키워드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12(3), 205~247쪽.

한국갤럽 (2025), 「마켓70 2025 (2) 미디어·콘텐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8종 이용률」, 『갤럽리포트』, 2025. 10. 2.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86, 2026. 10. 14. 접속).

허정우·양혜지·오하영 (2025), 「KR-FinBERT-SC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담론 분석 연구: 뉴스 데이터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9(9), 1111~1122쪽.

Borup, Mads, Nik Brown, Kornelia Konrad, Harro van Lente (2006), "The Sociology of Expect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8(3-4), pp. 285~298.

Brown, Nik, Mike Michael (2003), "A Sociology of Expectations: Retrospecting Prospects and Prospecting Retrospect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5(1), pp. 3~18.

DeVito, Michael Ann, Darren Gergle, Jeremy Birnholtz (2017), "'Algorithms Ruin Everything': #RIPTwitter, Folk Theories, and Resistance to Algorithmic Change in Social Media," *Proceedings of the 2017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pp. 3163~3174.

Flyvbjerg, Bent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pp. 219~245.

Gelman, Susan A., Cristine H. Legare (2011), "Concepts and Folk Theori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0, pp. 379~398.

Konrad, Kornelia, Harro van Lente, Christopher Groves, Cynthia Selin (2017), "Performing and Governing the Future in Science and Technology", Ulrike Felt, Rayvon Fouché, Clark A. Miller, Laurel Smith-Doerr (eds.), *Th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4th ed., The MIT Press, pp. 465~493.

Li, Zhuoman, Nuri Kim, Chen Lou (2026), "Into the Black Box: Laypeople's Folk Theories abou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Big Data & Society*, 13(2), pp. 1~13.

Newport, Frank (1999), "American Concern About Y2K Continues to Drop," Gallup News Service, December 22, 1999. (https://news.gallup.com/poll/3394/american-concern-about-y2k-continues-drop.aspx, 2026. 9. 9. 접속).

www.kci.go.kr

Noer, Michael (1998), "Y2K Fear Merchants," Forbes, March 12, 1998. (https://www.forbes.com/1998/03/12/feat.html, 2026. 9. 9. 접속).

Pollock, Neil, Robin Williams (2010), "The Business of Expectations: How Promissory Organizations Shape Technology and Innov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40(4), pp. 525~548.

Van Lente, Harro (2012), "Navigating Foresight in a Sea of Expectations: Lessons from the Sociology of Expectation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4(8), pp. 769~782.

Van Lente, Harro, Sjoerd Bakker (2010), "Competing Expectations: The Case of Hydrogen Storage Technologie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2(6), pp. 693~709.

Yardeni, Edward (1997), "The Year 2000 Problem: We Need Answers," Prepared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and Technol ogy,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United States Senate, November 4, 1997. (https://www.banking.senate.gov/themes/b anking/hearing_archive/97_11hrg/110497/witness/yardeni.htm, 2026. 9. 9. 접속).

Ytre-Arne, Brita, Hallvard Moe (2021), "Folk Theories of Algorithms: Understanding Digital Irritation," *Media, Culture & Society*, 43(5), pp. 807~824.

Dario Amodei 홈페이지 (https://darioamodei.com/post/we-must-pace-the-fron tier, 2026. 10. 14. 접속).

The Diary Of A CE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giT0ytynSqg, 2026. 9. 9. 접속).

Peter H. Diamandis 유튜브 (https://youtu.be/RSNuB9pj9P8, 2026. 9. 9. 접속).

「YouTube 2025 영향력 평가 보고서」 (https://www.youtube.com/intl/ALL_kr/how youtubeworks/youtubes-impact/, 2026. 10. 14. 접속).

www.kci.go.kr

Abstract

Expert Expectations of AI and Their Reception - A Case Study of YouTube Videos and Comments

Chae, Woongjun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Keimyung University, 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operate together with the expectations that experts invest in them. Expert expectations guide people's perception and actions concerning technology in particular directions and lend them legitimacy. The public, however, does not always accept expert expectations as they are 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reveal the process through which expert expectations about AI are reconstructed as they become articulated with the folk theories of viewers. Specifically, it takes as its case the six most-viewed videos returned by a YouTube search using the Korean term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together with 816 comments drawn from the 1,739 comments that received at least ten likes, and analyzes both the ways in which the expert justifies these expectations and the ways in which viewers receive them. The expert foresees sweeping structural changes driven by AI while leaving preparation for them to individuals, and pairs firm certainty with reservations that limit the expert's accountability for those expectations. Viewers, for their part, draw on personal experience, secondhand accounts, and familiar narratives to endorse, refine, or contest these expectations. By shedding light on how viewers reconstruct these expectations, the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for experts who voice expectations about a future that cannot yet be verified.

Keywords: future of AI, expect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 discourse, sociology of expectations, folk theories, reception of discourse, YouTube

논문 투고일: 2026년 09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6년 10월 06일
게재 확정일: 2026년 10월 15일

www.kci.go.kr